만발공양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부산 견강암, 9월 11일 고동바귀공원서 효 잔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오직 자비나눔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찰, 부산 견강암이 지역민을 위한 만발공양을 펼친다.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견강암은 매월 2·4주 수요일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 없는 마음으로 인연이 되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나누는 만발공양은 신도들의 신행터이자 신심 증장의 밑거름이 됐다. 견강암 만발공양 나눔은 이후 장학금, 어르신 효 관광, 김장 등으로 나눔이 확장돼 지역 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9월 11일 낮 12시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孝) 잔치를 개최한다.

효 잔치는 매월 진행하는 만발공양 때 찾아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식을 나누고 양말 등 선물을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다. 또 초청가수 공연과 무료이발 봉사를 진행하고, 모라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500㎏을 전달하며 풍요로운 한가위를 기원한다. 이뿐 아니라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견강암 자비나눔은 주지 향공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향공 스님은 출가 당시 나눔과 회향의 삶을 발원하며 출가해 봉사단체 정각회를 조직했다.

향공 스님은 "출가 할때 오직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고 나눔으로 회향하는 삶을 발원했다. 모두가 나 자신과 하나이고, 서로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라며 "꾸준히 이어진 자비

매월 만발공양으로 자비나눔
지역 어르신 위해 행사 열어
봉사단체 정각회 창립하면서
지역 나눔활동 모범적 실천

나눔 활동은 저뿐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함께 성장하는 신행 활동처가 됐다"고 설명했다.

나눔을 위해 향공 스님이 시작한 것은 만발공양이다. 2005년부터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자 스님은 국수를 삶아 고동바위공원으로 향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공양을 나누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수가 늘어났고 점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졌다. 신도들이


부산 견강암은 지역 어르신을 위해 9월 11일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孝) 잔치를 개최한다. 사진은 주지 향공 스님이 만발공양 당시 봉사하는 모습.

하나둘 스님의 원력에 동참하기 시작해 스님은 봉사단체 정각회를 구성했다. 현재 정기 봉사자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정기 후원자도 생겨났다.

정각회의 봉사활동 도움으로 스님의 만발공양은 더욱 확장돼 2010년부터 차상위 계층 및 조손가정,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나눔활동도 이어졌다. 신도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쌀이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되는 것을 보고 더 신심이 깊어졌고, 기도비는 장학금이 되어 마음이 뿌듯해졌다고 했다.

견강암은 매년 쌀을 1500㎏을 나누고 있으며 장학금은 매년 300만원씩 전달하고 있다. 특히 견강암에서 주도하고 있는 효 관광은 지역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됐다. 여행을 다녀온 어르신들의 입소문으로 참가자 수가 점점 늘어나 800여 명이 이미 여행 등록을 한 상태이다. 효 관광은 10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향공 스님은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 온 것은 관심을 가져 준 모든 신도들과 봉사자들의 정성 덕분"이라며 "나눔을 통해 행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 도량을 넓히는 일주문 되길"

진주 한마음선원 일주문 준공
호랑이·까치 등 장엄물 눈길

"일주문을 들어가고 나오며 마음 도량 넓혀가고, 각자의 마음 도량도 함께 살피고 지켜가길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지원장 혜근)은 8월 24일 일주문 준공식을 진주지원 일주문 앞에서 봉행했다. 이날 승·재가 내빈이 제막천을 잡아당기자 호랑이와 까치 형상으로 조각된 장엄물이 정겨운 모습을 드러냈고, 새로운 양식의 일주문이 대중 앞에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일주문은 모든 생명과 하나가 돼 일주문을 나고 들며 마음 도량을 넓혀 나갈 것을 다짐하자는 취지로 새롭게 조성됐다. 호랑이 장엄물은 불법을 수호하고, 까치 장엄물은 항상 법계를 살피며 좋은 인연을 인도하란 의미로, 큰 나무 위에 위치한 까치 형상으로 조성됐다. 또 일주문 아래 바닥에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둥근 파장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중심부에 조각했다. 밤에도 조명을 비춰 지혜광명이 빛나도록 7개의 조명을 설치해 밝게 빛나는 지혜의 가르침을 상징화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은 8월 24일 새 일주문 준공식을 봉행했다.

일주문 준공식은 개식사와 삼귀의로 시작해 참석한 내빈을 소개했다. 일주문 준공식을 위해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을 비롯해 각 지원의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최용호 진주지원 신도회장, 조경래 부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인사말과 격려사로 불사에 힘 모은 모든 불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또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신도들은 일주문 장엄물 및 불사에 앞장선 김동철 석주조각원 명장과 이정훈 소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여기 일주문 보개는 대행 스님 동산에 맞춰 제작됐지만 이곳 진주지원에 인연이 되어 왔다. 그래서 더욱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의미가 있다"며 "신도님들이 더욱 열심히 정진해주길 바라며 마음의 문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호 진주지원 신도회장은 "아름다운 일주문이 이곳 생명도량을 장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일주문이 서기까지 지극한 마음을 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진주=하성미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는 8월 24일 통도사 경내 설법전에서 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이사장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소통 중심 전인적 교육환경 마련"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해동고교 이사장 취임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해동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소통으로 발전을 꾀하고 균형 잡힌 교육행정으로 인재불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4일 통도사 경내 설법전에서 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이사장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이사장 현문 스님의 취임 고불문 봉독 및 수행이력 소개와 취임사, 방장 성파 스님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사장 현문 스님은 교육을 전통과 미래를 위한 중요 불사라고 강조하며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현문 스님은 "교육은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벗이며 미래문화를 창조하는 마중물"이라며 "개인주의화 된 사회 속에 목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소통을 바탕으로, 전인적이고 균형감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독려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격려사에서 "새로 취임한 이사장님은 여러 가지 덕목을 두로 갖추고, 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큰 횃불이 되어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사장님의 원력에 발맞춰 교육문화 불사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취임 고불식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이사장 현문 스님, 해동고등학교 임직원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국·대만불교 승가 학술교류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회, 불광산사서 세미나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회(회장 인성)가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해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8월 18~22일 대만 불광산사에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대만불교와 한국불교의 차별성과 미래지향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국제학술세미나를 추진한 인성 스님은 "부처님 법을 세계에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수행자로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방불교대학 학장 수암 스님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만불교의 성공요인을 스님들의 철저한 계율 수호와 투명한 사찰 운영으로 신도들의 신뢰가 두터운 점, 인간불교, 탄탄한 신도조직 등을 꼽아 강조했다. 반면 대중공의의 실종과 종단의 난립으로 승가자질 저하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한국불교의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대만 불광산사 부주지 혜개 스님은 대만불교의 특징으로 사찰운영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비불부작을 들었다.

학술세미나에는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스님들과 제주 금봉사 나유타 합창단원 등 107명이 참석했으며, 불광산사에서 열린 공승재에도 동참했다. 또 불광산사 불타기념관에서는 한국의 불교전통문화인 영산작법 시연이 열렸으며 나유타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이 펼쳐졌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과 대만불광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포교 불교전통문화 인적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분한신고 및 입종모집 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크신 원력을 계승**하여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을 재정비하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일붕 큰스님의 뜻을 따르는 승려 및 법사들을 영입, 입종하고자 분한신고 및 입종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불교중흥의 원력을 갖고 계신 승려 및 법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본 종단에 입종하시길 희망하는 모든 승려, 법사님들께서는 입종서류를 작성하여 본 종단 각 교구 및 총무원에 접수 바랍니다.
2.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 후 심사하여 선별 복권토록 합니다. (멸빈은 제외)
3. 이번에 새로 입종하신 스님 및 법사님들에게는 입종비가 면제되는 특혜를 드립니다.

실시기간 2019년 9월 1일 ~ 12월 31일

대 상 • 본 종단 입종을 희망하는 모든 승려, 법사
• 본 종단에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 법사

제출서류 입종 서류 및 분한신고 서류 참조

접수장소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각 교구 및 총무원 사무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총무원 전화 02)991-8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원 주소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불기 2563(2019)년 9월 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